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REALTOR **데이빗 전**

(714)309-2355

오픈특가 \$7.00/LB

aci store

한국택배 / 24H 메일박스 오픈 (부에나팍 사거리)

*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 / 항공·해운 물류서비스
*전자상거래·배대지·3자물류대행·한국역직구대행·전세계택배
*개인소화물·귀국이사·미국내화물/이삿짐운송·수입수출통관

T.714.735.9277 www.aciexpress.net
www.shippingtohome.com



갈갈 웃음



[중년 남자]
한 중년 남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의사를 찾아와 상담했다. “선생님, 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환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떤 때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간혹 찾아갔던 곳도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잠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은 적도 있나요?”
“사실 그래서 상인들과 다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소리쳐 간호사를 불러 말했다.
“간호사 우선 이 환자의 진료비부터 받도록 조치하세요.”

[피카소 그림]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사모님이 미술관에 갔다. 한 그림 앞에서 안내인에게 말했다.
“이건 마네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대답했다.
“사모님, 이건 모네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 앞에서 사모님이 말했다.
“이건 르누아르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대답했다.

“사모님, 이건 고흐 그림입니다.”
사모님이 다른 그림 앞으로 이동해 다시 물었다.
“이 과장한 초상화는 분명 피카소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난처한 듯 대답했다.
“사모님……, 그건 거울인데요……!”

[탈출]
한 정신병원에서 갑갑함을 참지 못한 두 명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협동해 침대 시트를 찢은 뒤 그 조각들을 묶어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되자 먼저 한 명이 밧줄을 창 밖으로 던지고 내려갔다.
잠시 뒤 다른 한 명이 따라 내려가려는데 먼저 내려갔던 환자가 불쑥 올라와서는 말했다.
“안 되겠어. 너무 짧아.”

두 사람은 옆방 시트도 몰래 가져오고 환자복도 벗어 아까보다 훨씬 긴 밧줄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아까 먼저 내려갔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환자가 다시 올라오더니 말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엔 너무 길어.”

[어차피 마찬가지로]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생활은 뒤죽박죽이 됐다. 밤마다 아이가 보채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나를 깨웠다. “어보, 일어나요! 어째서 애가 우는지 가봐요!”

잠을 설치는 날이 그렇게 계속된 어느 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딱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유아 마사지에 관한 책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난 그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는 조용히 잠을 잤다. 그런데 한밤중 아내가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어보, 일어나요! 애가 울지를 않으니 어쩐 일인지 가봐요!”

[노인정에서]
김 할머니는 팔손이 넘어서 귀가 어둡다. 하루는 김 할머니가 노인정에 갔는데, 제일 싫어하는 약국집 송 할머니도 왔다. 송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구!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 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러.”

하지만 귀가 어두운 김 할머니.
“어휴~!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루 맨날 자랑질이여…인자는 허다허다 안되니께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자랑질하구 자빠졌어.”

요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때,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던 노인정의 최고 어른인 왕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시끄러! 이 할마시들이 아까부터 왜 자꾸 ‘싼스 세장’ 갖구 난리들이여. 그냥 적당히 입어!”



Candice K. Kim (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